

13개월 후의 21C를 준비하자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11월은 수확의 계절로 예년 같으면 풍년을 구가하고 모든 국민들 마음이 푸근해질 계절이지만, 금년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만큼 국민들의 마음도 차가워진 것 같다.

특히 양돈농가는 돼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해서 벌써 겨울이 온 느낌이다.

금년도 양돈관계 통계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돼지 마리수는 크게 증가했는데 배합사료 생산량은 그대로이고 도축 실적은 크게 증가한 것 등이다.

물론 사육두수는 조사대상 농가 등 조사방법에 변화가 있었고, 사료는 잔반사료 등 자급사료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도축두수는 많은 부분이 도체등급제와 규격돈 생산 장려금

지원 등으로 양성화된 부분도 있으나 쉽게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비수요기이기도 하지만 장기간 돼지 가격이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돈이 돌지 않는 것을 불황이라고 한다. 돈이 잘 도는 것을 반대로 호황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생산시설이 없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경제사정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이 돌지 않아서 GN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은행은 은행대로 돈은 많은데 대출을 해주지 못해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다. 기업과 은행이 부채가 너무 많아 돈이 돌

사육두수		배합사료 생산량		도축두수	
98. 9	7,788,247두	98. 8	388,872t	98. 1~8월	8,022,279두
97. 9	7,064,011두	97. 8	394,351t	97. 1~8월	6,866,040두
98/97 증감	10.2% 증가	98/97 증감	1.4% 감소	98/97 증감	16.8% 증가

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돈이 잘 돌게 하기 위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 설비, 중복 투자 등 균살을 빼려 하지만, 음식조절로는 잘 안되고 있어 기아와 한보 등 기업과 은행은 대수술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

양돈업계도 이제 돈이 돌지 않는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돈이 돌지 않으니 사료 구입이 어렵고 부채가 커져가고 있다.

양돈업계의 10월 대란설, 11월 대란설 등 자극적인 보도로 국민들이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사료회사들은 사료외상을 수급하려 하고, 금융권이나 사채를 얻는 것 등 자금유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소위 양돈업계의 신인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의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 등급을 낮추면 달러가 유입되지 않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환율이 오르고 주식 값이 하락하는 것과 같다.

양돈업계의 부채는 너무 많다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양돈업계의 대외 신인도 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에 신규 자본 유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돈업계의 부채가 정부의 정책자금과 사료 외상대금이 대부분으로 정책자금은 2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한숨 돌리지만 사료외상대는 GSM-102 차관이 불투명해 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이제 양돈산업은 규모 확대보다는 도축·가공처리, 유통, 방역, 분뇨처리 등 돼지고기의 품질을 높이는 쪽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보이지 않는 투자가 없으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

IMF가 만병통치약처럼 쓰이지만, 아직도 그간 모아놓은 돈과 그간의 신용으로 IMF를 아직 깊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 IMF의 매서운 찬바람을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

멕시코가 7년의 기간을 거쳐 IMF체제에서 회복되었듯이, 최근 아세아, 러시아, 중남미 등으로 이어지는 불황과 미국의 경기 퇴조 등 경기 회복을 어렵게 전망하는 속에서도 김종필 총리가 대독한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상반기를 지나 우리 경제가 회복의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전망은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봄을 기다리며 이제 13개월 후로 다가온 2000년을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2000년은 우리에게도 상상도 못할 많은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養豚